

빈집 느끼데 공급폭탄까지...경기 미분양 공포 확산

경기 지역에 미분양 공포가 확산되고 있다. 준공 후에도 주인을 찾지 못하는 빈집이 늘어나고 있는데 대규모 공급까지 예정돼 있어 그늘이 짙어지고 있다.

4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올해 1월 말 기준 경기 지역 미분양은 전월 대비 36.3%(1801호)나 급증한 6769호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 미분양(5만9162호)의 11.4%에 해당하는 것으로 전월 8.4%보다 비중이 크게 증가했다. 수도권(서울·인천·경기) 미분양(8153호)의 83%에 달하는 수치이기도 하다.

양 우려 ▲모니터링 필요지역 등 4가지 기준 중 하나라도 해당될 경우 선정된다 경기 고양은 미분양관리요건에 해당하지만 조정대상 지역이라 미분양 관리지역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경기 지역에는 올해 대규모 공급 폭탄이 예정돼 있어 우려를 낳고 있다. 당장 이달에만 1만 5000세대가 넘는 가구가 입주할 시작한다

부동산정보서비스 직방에 따르면

(1538가구) 등 1000세대가 넘는 10개 단지를 포함해 총 17개 단지가 예정돼 있다.

분양시장에도 비상이 걸렸다. 금융결제원 아파트투유를 분석한 결과 올해 1~2월 경기에서 민간이 분양한 단지 7개 중 화성송산그린시티 대방노블랜드 EA A5·12 등 3곳이 순위 내 마감에 실패했다. 그나마 위례포레지아만 130.33대 1의 돋보이는 청약 경쟁률을 기록했을 뿐이다.

미분양 전월비 36.3% ↑...악성미분양도 ↑
3월 입주폭탄...전국 물량의 43.2% 몰려
주택거래량도 급감...전년비해 41% 급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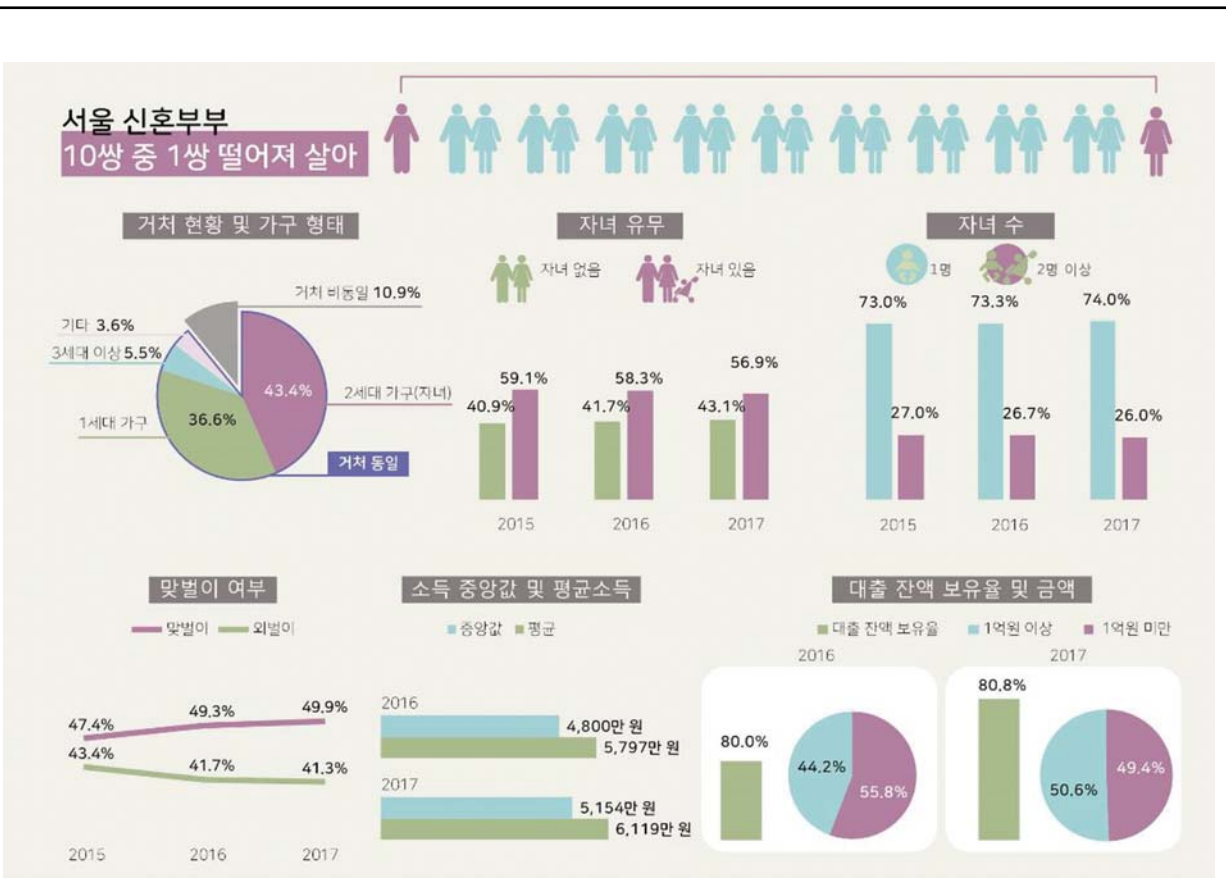
이달 전국 입주 예정 물량은 지난해 같은 달(3만2027가구)보다 12.76% 증가한 3만6115가구인데 절반 가까이 경기에 몰려 있다. 경기 물량은 전체의 43.22%(1만6610가구)로 특히 용인, 화성 등 경기 남부에 집중돼 있다.

남양주 반도유보라메이플타운 2.0(1261가구), 수원 영통아이파크 캐슬 1단지(1783가구), 평촌더샵아이파크(1174가구), 양주 e편한세상 옥영3차(1566가구), 용인기흥효성해링턴플레이스(1679가구), 용인 2차 망우내안예에듀퍼스트(1098가구), 의정부 e편한세상추동공원(1561가구), 화성 봉단더샵레이크뷰타운

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이달 전국적으로 1만8048가구(수도권 8865가구, 지방 9183가구)가 공급(일반)되는데 이 중 경기(4332가구)가 가장 많은 비중(24%)을 차지했다.

주택 거래량도 급감하고 있다. 경기 부동산포털을 보면 지난해 경기 주택 거래량은 6025건으로 2018년 7월(5763건) 이후 5년 7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전월 7720건보다 12% 감소했고 지난해 같은 달(1만 3025건)보다는 무려 41% 급감했다.

특히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 지역으로 지정된 곳에서 감소폭이 컸다.



서울 지역 신혼부부 10쌍 중 1쌍 생이별...가계대출 80%

가구형태 자녀 포함 2세대 가구 최다...맞벌이 비율·가계대출액 매년 늘어

서울 신혼부부 10쌍 중 1쌍은 떨어져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서울연구원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서울지역 신혼부부는 약 26만3000쌍이다. 이 가운데 떨어져 살고 있는 부부는 10.9% 차지했다. 부부가 함께 사는 경우 자녀 포함 2세대 가구(43.4%)가 가장 많았고 1세대 가구(36.6%)가 뒤를 이었다.

영유아 자녀의 가정 양육은 감소하고 어린이집 보유는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신혼부부 중 56.9%는 자녀가 있었다. 자녀가 없거나 자녀가 있더라도 1명인 비율은 매년 증가했다. 첫째 자녀 출산 시기는 실제 결혼 시작 후 12개월 미만이 34.8%로 가장 많았다. 이어 ▲12~24개월(31.3%) ▲결혼 시작일 전(14.0%) ▲24~36개월(13.3%)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영유아 자녀 절반은 가정에서 양육하고 있었다. 2년 전보다 가정 양육은 3.7%p 감소했고 어린이집 보유는 3.5%p 포인트 증가한 40.5%로 집계됐다.

맞벌이 비율과 가계 대출 액수도 매년 증가하고 있었다. 맞벌이 부부 비율은 매년 증가하는 반면 외벌이 비율은 감소했다. 부부합산 연간 평균소득은 6119만원, 소득 중앙값은 5154만원이다. 전년 대비 평균소득은 5.6%, 소득 중앙값은 7.4% 증가한 것이다.

금융권 가계대출 보유율은 80.8%, 대출 잔액 중앙값은 1억원 수준이다. 1억원 이상 비율은 전년보다 증가했다.

뉴스스

한강공원에 미세먼지 신호등 설치한다

빨강~파랑 색상·표정으로 멀리서도 한눈에 농도 확인

서울시는 이달 중 한강공원 11개 진입로에 미세먼지 신호등을 설치한다고 4일 밝혔다.

미세먼지 신호등이란 미세먼지 농도를 멀리서도 한 눈에 확인할 수 있게 하는 설비다. LED전광판에 교통신호등과 같이 빨강(초미세먼

지 농도 매우나쁨, PM-10 151 이상)·노랑(나쁨, PM-10 81~150)·초록(보통, PM-10 31~80)·파랑(좋음, PM-10 0~30) 등 색상이 표시된다. 다양한 얼굴표정을 더해 아이들도 손쉽게 미세먼지 농도를 알 수 있게 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시는 공원 입구에 미세먼지 신호등을 설치한다. 야외활동을 하기 전 미세먼지 농도를 확인하고 미세먼지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야외활동을 자제하도록 돕기 위해서다.

미세먼지 신호등 설치에 현대해상 기부로 이뤄진다. 시는 현대해상과 신호등 설치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시는 향후 시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도시공원 등에 미세먼지 신호등을 추가 설치할 예정이다.

서울시 '전통우리음식 무료강좌' 수강생 모집

시민 200명 대상 15일까지

서울시가 우리 전통 고유의 '전통주·식초' 만들기를 배우는 '전통우리음식 무료강좌' 수강생을 모집한다.

4일 시에 따르면 강좌는 오는 14일부터 15일까지 시민 200명을 대상으로 서울농업기술센터에서 진행한다. 참여신청은 11일 오전 10시부터 13일 오전 10시까지 인터넷으로 할 수 있다.

이번 강좌는 이상균 전통주 조리기능사의 강의로 진행된다. 14일에는 전통주(막걸리), 15일에는 곡물식초 만드는 법을 이론과 시연으로 배운다. 수강 인원은 각각 100명씩이다.

참가비는 무료이며 교육생은 선착순으로 200명 모집한다. 신청은 서울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http://agro.seoul.go.kr>) 신청바로가기 메뉴에서 가능하다.



전통우리음식 강좌에 대한 문의는 서울농업기술센터 인재육성팀(459-6754, 6959-9370) 또는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된다.

조성태 서울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전통발효음식인 전통주와 식초 만들기 교육을 통해 발효음식이 우리 건강에 얼마나 많은 도움이 되는지를 시민들에게 알려주겠다"며 "건강한 전통생활 실천에 도움이 되고자 공개 강좌를 개설하니 관심있는 시민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마틴 루서 킹 목사 막내딸 '서울시 명예시민' 된다

노벨 평화상 수상자인 마틴 루서 킹 목사 막내딸이 '서울시 명예시민' 이 된다

서울시는 4일 버니스 킹 박사에 서울시 명예시민 자격을 부여한다. 버니스 알버틴 킹(Bernice Albertine King, 이하 '버니스 킹') 박사는 마틴 루서 킹 목사 딸의 자녀 2남2녀 중 막내딸이다.

버니스 킹 박사는 17세였던 1980년 유엔에서 인종차별에 반대하는 연설을 하면서 일찍이 인권운동가 활동을 시작했다. 설득력 있는 연설 전달력은 아버지의 재능을 물려받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는 2012년부터 킹 센터 대표로 일하고 있다. 이 단체는 마틴 루서 킹 목사 1968년 백인우월주의자의 총에 암살당한 이후 인종차별 철폐와 인권 신장 운동에 앞장선 목사의 아내 코레타 스콧 킹 여사에 의해 설립됐다.



완도군 e-shop

완도군 공식 농·수산물 쇼핑몰

완도군 특산품관

WANDO COUNTY

전국제일의 청정바다에서 생산된 전복, 김, 미역, 멸치, 다시마 등 자연 그대로의 맛과 신선함!